



금융감독원

보도참고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 행복하게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12.5.(목)
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시장안정국	책임자	국 장	이 진	(02-3145-8170)
	금융시장총괄팀	담당자	부국장	김정훈	(02-3145-8180)

금감원, 원장주재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(12.5일)

- 시장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변동성 확대 우려에도 불구하고, 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발표, 양호한 외화유동성 사정 등으로 금융·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.
 - 다만, 美 관세정책 등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,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시장안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.
- 이복현 원장은 기관투자자들이 중장기적 투자시계를 가지고 단기적 시장변동에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고, 감독당국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선진화, 규제합리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.
 - 시장도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들도 연말 및 내년도 투자와 자금공급을 예정대로 정상 집행하는 것이 경제와 시장회복에 원동력이 된다면,
 - 감독당국도 경제주체가 정상적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- 또한,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그마한 이상조짐도 빠짐없이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.
 - ① 금융시장 전문가, 외국인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시장의견을 충분히 청취·수렴하는 한편, 금융회사의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하여 필요사항은 보완
 - ②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취약부문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토록 CCO(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)에 지도
 - ③ 이상징후를 보이는 정책·정치테마주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, 투자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투자자 주의 환기 조치
 - ④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체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